

두부와 체부 백선이 동반된 비전형적인 안면부 백선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김세연 · 김경문 · 김시용

= Abstract =

A Case of Atypical Tinea Faciale Accompanying Tinea Capitis & Tinea Corporis

Sei Yeon Kim, Gyung Moon Kim and Si-yong Kim

Department of Dermat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Tinea faciale is a dermatophyte infection of glabrous skin of the face except bearded areas of the adult male. Tinea faciale usually has been classified as tinea corporis but recently recognized as a separate disease entity. The age distribution of patients was highest in the age group of 10 years or under. The most common pathogens are *Trichophyton rubrum*, *Microsporum canis*, *T. mentagrophytes*. We present an atypical case of Tinea faciale with Tinea capitis & Tinea corporis caused by *Microsporum canis* in a 75-year-old woman. [Kor J Med Mycol 2006; 11(2): 71-75]

Key Words: Tinea faciale, Tinea capitis, Tinea corporis

서 론

안면 백선은 남자의 턱 수염 부위를 제외한 안면부에 발생한 백선으로, 일반적으로 체부 백선에 포함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독립된 범주의 질환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백선 환자의 2.7~4.0%¹⁻³를 차지하며, 체부 백선과 같이 특징적인 환상의 병변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경미한 인설과 구진이 나타나 진단 및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최근 부신피질 호르몬체의 남용에 따라 병변의 모양이 변형되어 비특이적인 형태의 임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얼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과의 감별을 요한다. 많은 환자에서 피부 병변에 대한 진균학적 검사 없이 치료받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원인 피부 사상균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Trichophyton rubrum*, *T. mentagrophytes*, *Microsporum canis*가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저자들은 75세된 성인 여자의 두부 백선과 체부 백선을 동반한 비전형적인 *Microsporum canis*에 의한 안면 백선 1예를 경험하고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환 자: 손 OO, 75세, 여자

주 소: 수주간 지속된 두피, 얼굴, 목, 상흉부에 발생한 홍반성 구진 및 농포

현병력: 환자는 내원 수주일 전부터 두피에 다수의 홍반성 구진과 부분적 탈모가 발생하였으며, 병변이 농포로 변화하면서 얼굴과 목, 상흉부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치료에 반응이 없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학적 검사: 피부 소견 이외에는 특이 소견 없음.

[†]별책 요청 저자: 김경문, 442-72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번지, 성빈센트병원 피부과
전화: (031) 249-7465, Fax: (031) 253-8927
e-mail: kgmcmcdm@yahoo.co.kr



Fig. 1A. Multiple erythematous nodules on the face, neck, & ant. chest.

Fig. 1B. Hairless, crusted and indurated areas exuding pus with pronounced swelling.

과거력: 10년전 곤충 교상으로 추정되는 외상 후 간헐적으로 두피에 홍반성 구진을 보였으나 피부과 적 치료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양상 보였으며, 동물과의 접촉력은 없음.

가족력: 특이 사항 없음.

피부 소견: 병변은 두피, 얼굴, 목과 상흉부에 발생한 다수의 농포를 동반한 홍반성 구진 (Fig. 1)으로서 심한 소양감과 촉지시의 동통이 동반되었고, 병변 주위의 피부 조직은 매우 약하였다. 두피의 병변이 가장 심한 농포 형성을 보였고, 병변 주위로 다발성의 탈모가 관찰되었으며, 얼굴과 목, 상흉부의 병변은 인설을 동반한 구진 양상이었다.

검사실 소견: 일반 혈액 검사상 백혈구가 $15200 \times 10^6/\text{mm}^3$ 으로 백혈구 증다증을 보였고, 그 외 뇨검사, 전해질 검사, 간기능 검사는 정상범위였다. C 반응 단백이 양성을 보였으며, FANA와 V.D.R.L 은 모두 음성 소견을 보였다.

진균 검사 소견: 두부, 안면과 상흉부에서 각각 시행한 KOH 도말 검사상 인설, 농포, 침범된 모발의 둘레에 수많은 포자 및 분절균사가 관찰되었으

며, 두부의 Wood등 검사에서 녹황색 형광의 모발을 볼 수 있었다. 배양시 Sabouraud 포도당 배지에서 빠른 속도로 자라는 균주가 관찰되었고, 배지의 전면에는 희고 끝은 미세한 섬모상 균사가 방사상으로 자랐으며, 배면은 황동색으로 착색되어 있었다. 배양된 진균의 현미경 소견상 6개 이상의 격벽으로 나누어진 방추형의 대분생자를 볼 수 있었으며, 벽은 두꺼운 편으로 표면에는 많은 작은 돌기가 보였다. 이와 같은 소견으로 *Microsporum canis*로 진단할 수 있었다.

병리 조직학적 소견: 두피 및 안면부와 상흉부의 병변에서 시행한 피부 생검에서 H-E 염색상 진피 전층에 걸쳐 림프구, 중성구 등의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Fig. 2A), 모낭 주위로 육아종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PAS 염색상 붉게 염색되는 다수의 포자가 모발 주위에서 관찰되었다 (Fig. 2B).

치료 및 경과: 두피와 얼굴, 상흉부 병변에 항진균제인 Isoconazole nitrate 연고를 국소 도포하였고, 초기에 1회의 dexamethasone injection을 시행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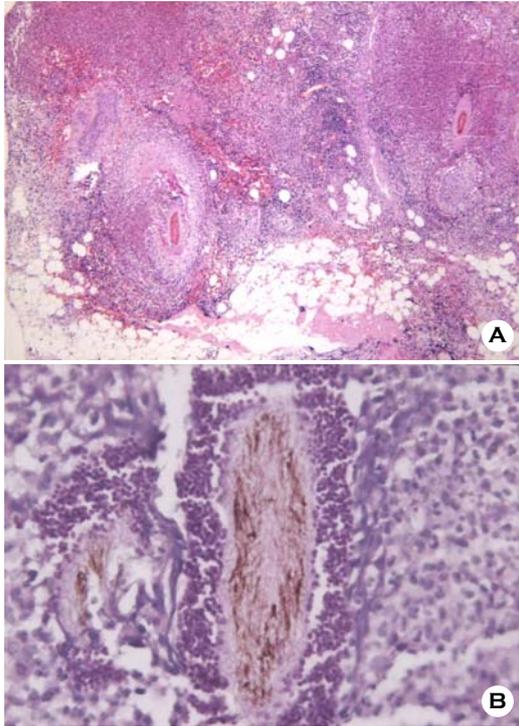


Fig. 2A. Histopathologic finding shows granulomatous changes in dermis and many spores around the hair shaft (H & E, *40).

Fig. 2B. Many spores are found around the hair shaft (PAS stain *400).

며, 심한 소양감에 대해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였고, 전신적으로 itraconazole과 3세대 cephalosporin을 투여하여 현재 14주째 추적 관찰 결과 많은 부위에서 피부 병변의 소실과 정상 모발의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

고 찰

안면 백선은 일반적으로 체부 백선에 포함되어 왔지만, 1982년 조 등¹에 의한 보고 이후 독립된 범주의 병형으로 취급되고 있다. 안면 백선은 진균 감염의 빈도가 낮고, 전형적인 진균 감염의 임상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어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문헌상 안면 백선을 독립된 병형으로 분류하고 그 임상적 및 진균학적인 특징에 대해 보고한 경우는 조 등¹, 이 등³, 정 등²이 있다. 국내에서 전체 백선 중 안면 백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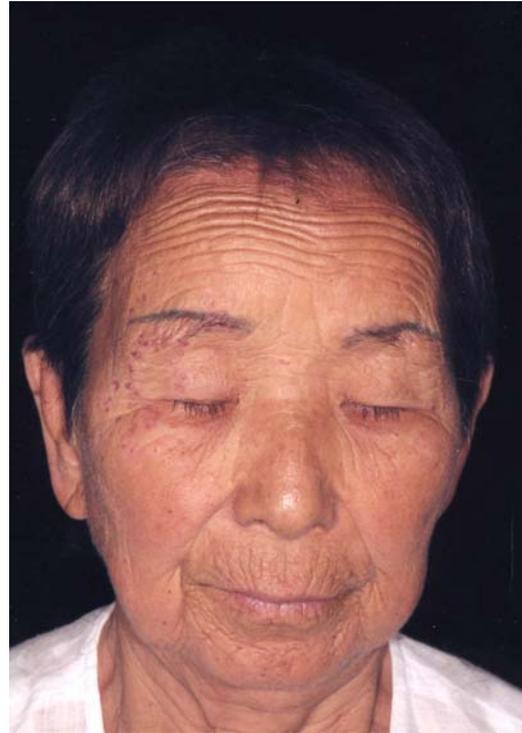


Fig. 3. Improvement of face 14 weeks after treatment.

2.7~4.0%^{1~3}이고, 외국에서는 4.7%로 보고되었다⁴.

연령별로는 전체적인 피부 진균증이 20, 30대와 같이 활동 연령층에서 호발하는데 비하여 안면 백선은 10대 미만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며, 다음으로 20대, 10대의 순으로 나타난다^{1~3,5}. 계절별 발생 빈도는 Gilgor 등⁶은 주로 봄과 가을, 조 등¹은 여름, 정 등²은 봄과 겨울, 임 등⁵은 가을에 호발한다고 하였고, 이 등³은 계절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안면 백선은 다른 피부 진균증이 대체로 고온 다습한 여름에 호발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면 백선의 경우 *M. canis*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저온 건조한 곳에서 번식하는 균의 특성과 실내 감염원인 애완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추운 시기에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⁷. 본 증례는 호발 연령군인 10대 미만이 아닌 73세의 고령에서 발병하였다는 점에서는 문헌 보고와 차이가 있으나 저온 건조한 겨울에 발생하였다는 점은 *M. canis*의 생태와 일치하는 점이다.

임상형의 분류에 대해 정 등²은 중심 치유를 보이

는 환상형, 중심 치유없이 경계 명확한 염증성 등근형, 판형, 구진 및 결절형의 4가지 형으로 분류하였다. 안면 부위는 항상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자극을 받고 있으므로 병변의 모양과 임상 증상이 다양하여 안면에 발생하는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이 요구된다. 또한, 많은 수의 환자에서 진균학적 검사없이 부신 피질 호르몬제를 사용하여,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감염을 확산시키고, 원래의 모양을 변형시키게 된다. 감별해야할 질환으로는 원판상 홍반성 루푸스, 접촉 피부염, 주사, 다형광 발진 등이 있다⁸⁻¹⁰. Pravda 등⁴은 안면 백선으로 진단된 36예 중 25예를 초진시 다른 질환으로 오진하였으며 이 중 20예가 광과민성 질환으로 진단되었다고 하였다. Shanon 등¹¹은 안면이 자주 씻는 부위이므로 병변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KOH 검사도 음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증례는 임상적으로는 구진형에 속하며, 특징적으로 구진이 안면부 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광범위하게 분포하면서 두피에는 농포와 가피를 동반하였다는 점에서 염색 제제나 국소 연고 도포에 의한 접촉 피부염과의 감별이 쉽지 않았다.

안면 백선의 원인균은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의 임 등⁵의 보고에 의하면 *T. rubrum*이 가장 많고, *M. canis*, *T. mentagrophytes*, *M. gypseum*, *E. floccosum*의 순이었다. *T. rubrum*은 196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피부 사상균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안면 백선에서도 가장 많이 분리되고 있으며, 20, 30대의 활동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이는 족부 백선, 조갑 백선 등이 이 연령층에 많아 자가 전염의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M. canis*는 10대 이하에서 많이 분리되는데, 이 연령층에서 애완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12,13}. 본 증례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된 *M. canis*라는 점에서 이제까지 국내에 보고된 *M. canis*에 의한 안면 백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M. canis*에 의한 안면 백선과 병발 백선증과의 관계는 국내 보고에서 체부 백선과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정 등²의 보고에 의하면 체부 백선 다음으로 두부 백선과의 병발이 총 53예 중 10예가 발견되었다고 하였으며, 본 증례에서는 두부 백선과 체부 백선이 함께 동반되었다.

본 증례는 두부와 체부 백선을 동반한 비전형적 양상의 안면 백선으로서, KOH 양성 소견과 Sabouraud 배지 배양 소견으로부터 *M. canis*를 원인균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두부의 병변은 심한 농포성 구진 양상으로 조직 검사상 많은 수의 염증 세포를 동반하여, Kerion celsi로 진단할 수 있었으며, 또한 73세의 고령의 여자에서 발생하였고, 과거력상 고양이 등의 동물 접촉력이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임상 양상이 환상형이 아닌 홍반성 구진의 형태로, 두부와 안면의 접촉 피부염으로 오진되어 초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타병원에서 초기의 진균학적 검사 없이 국소 스테로이드를 도포하여 감염을 확산시킨 것이 심한 염증성 양상으로 발전시킨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0여 년간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였지만 정확한 진단 절차 없이 국소 스테로이드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안면 및 두부 백선이 비교적 간단한 진균학적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초기 정확한 진단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저자들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여 악화되었으며, 진균 검사를 통해 *M. canis*를 확인하여 치료된 두부, 체부 백선이 동반된 비전형적인 안면 백선 1예를 경험하고 임상적으로 특이한 증례로 생각되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참 고 문 헌

1. 조경환, 조백기, 허원. 안면 백선증의 균학적 및 임상적 관찰. 대한피부과학회지 1982; 20: 389-396
2. 정경재, 서순봉. 안면 백선의 임상 및 균학적 관찰. 대한피부과학회지 1988; 26: 73-81
3. 이무웅, 최종수, 김기홍. 안면 백선의 임상 양상과 진균학적 소견. 대한피부과학회지 1994; 32: 662-668
4. Pravda DJ, Pugliese MM. Tinea faciei. Arch Dermatol 1978; 114: 250-252
5. 임선미, 최용범, 안규중. 안면 백선의 임상 및 진균학적 고찰. 대한의진균학회지 2004; 9(4): 214-221
6. Gilgor RG, Tindall JP, Elson M. Lupus erythematosus-

- like tinea of the face (tinea faciale). JAMA 1971; 215: 2091-2094
7. 강현영, 손호찬, 임연순, 조윤화, 한지윤. *Trichophyton mentagrophytes*에 의한 안면부 잡행 백선 1예. 대한피부과학회지 2000; 38(8): 1124-1126
8. 허원, 구상완, 한승경, 방동식. 비전형적인 임상 양상을 보인 안면 백선증 2예. 대한피부과학회지 1991; 29: 414-418
9. 김우진, 박진우, 신동훈, 최종수, 김기홍. 접촉 피부염으로 오진되었던 안면 백선 3예. 대한의진학회지 2004; 9(1): 54-59
10. Alteras I, Sandbank M, David M, Segal R. 15-year survey of tinea faciei in the adult. Dermatologica 1988; 177(2): 65-69
11. Shanon J, Raubitschek F. Tinea faciei simulating chronic discoid lupus erythematosus. Arch Dermatol 1960; 82: 268-271
12. Alteras I, Feuerman EJ. Atypical cases of *Microsporum canis* infection in the adult. Mycopathologia 1981; 74(5): 181-185
13. Alteras I, Feuerman EJ, David M, Segal R. The increasing role of *Microsporum canis* in the variety of dermatophytic manifestations reported from Israel. Mycopathologia 1986; 95(2): 105-107
-